

“도깨비와 호랑이의 집”

에밀레博物館長 趙子庸氏



鬼虎堂一. 에밀레博物館의 堂号다.

착하고 가난한 사람에겐 하루아침에 큰부자가 되도록 금은보화를 안기고 심술고약한 이에겐 무서운 방망이를 휘두르는 개주를 가지고 있고, 어느때 으스름 달밤에 느닷없이 나타나 동네장정과 밤새도록 씨름판을 벌이던 우리네 벗 도깨비와 근엄하고 무서운쪽 보다는 밋지않은 말썽을 곧잘 피우는 개구장이 같은 호랑이를 전국방방곡곡에서 온통 불러 모아 정성껏 대접하는 곳이 金浦空港이 그리멀지 않은 江西区 登村洞야 트막한 산아래 조용히 누워있다. 박물관 이름처럼 “에밀레...”하는 餘韻을 울리며—

“民俗民芸品の 종류나 형태는 펍 많지만 저는 그중에서 특히, 民画 가운데서도 도깨비하고 호랑이 그림을 모았습니다. 도깨비는 심술꾼인 동시에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바로잡게 해 주는 감시꾼 노릇을 해주죠, 또 호랑이는 예로부터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둘다 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기막힌 해학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堂号도 도깨비와 호랑이집이라고 했습니다.”

建築家 趙子庸씨, 아니 이전 民俗學者로 一家를 이루고있는 趙館長의 도깨비와 호랑이 「사랑論」이다. 물론 에밀레博物館에 도깨비와 호랑이만 모여있는건 아니다. 어느결에 프라스틱, 전자·전기제품등 삭막한 現代利器에 자리를 빼앗긴 우리네 숨결과 体温이 스민 각종 民芸品이 함께 있다. “처음에는기와를 모으기시작했죠. 한 20여년전 일겁니다. 경주, 부여 옛 都邑을 다니면서 나올만한 곳은 다 파헤쳤습니다. 기와조각 모으는데 미치면 세월가는 줄 모릅니다.

약 만여점됩니다.

그후에는 그림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역시 이런 민예품, 민속품들을 수집하다가 보니까 다시 건축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결국 다시 建築으로 되돌아왔고, 요즈음 民家(韓屋)의 再現作業을 구상중이라고. 특히 얼마전에는 전라도 지방에서 무려 2백50년전에는 지은 집을, 발견해서 그걸 그대로 박물관 뜰에다 옮겨다 놓으려고 했으나 許可가 안나온다고 웃는다.

“국립박물관에서는 모르겠다고 발뺠을 하고 구청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허가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시 짓지도 못하고 구석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런줄을 이미 오래전부터 안 趙館長은 財源도 마련하고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우수성을 세계市場(?)에 소개하기 위해 장장 5년여의 旅程에 올랐었다고. 그때가 지난 75년도—. 미국은 물론 구라파 등지에서 공연(?)을 벌였다. 등장인물은 물론 도깨비, 호랑이등 우리만의 그것들이었다.

미국 「오클랜드」에서의 展示에서는 손수 韓屋 세채를 짓고 거기에 맞게 각종 民芸品을 전시해서 성공적인 文化 「쇼」를 보여줬다고한다. 특히 정성을 들인것은 한옥의 우수성을 그네들에게 보이기위한 作業이었다.

“왜 美國展示에 신경을 썼나하면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合衆國 아닙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해서 우수성을 인정받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우수한 文化가 되거든요. 상당한 好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하나, 한옥은 짓기가 펍

까다로운것 같은 인상을 받잖아요. 모두 순수한 「핸드·메이드」 인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만 제멋이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한옥이 좋아도 한낱 유물적 가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옥도 격식에 맞고, 기계화에 의해 量産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 건축인마를 세워

함께 모여살았으면...

세계 건축사에서 한국건축이 인정을 받으려면 현대건축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고유의 건축을 가지고 겨루면 틀림없이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자광을 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렇게 5년간 「호랑이 사절단」을 이끌고 美國각지를 떠돌다가 그쪽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주소를 둔 재단법인 민중연합으로 세계각국의 민속민예를 소개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있다. 내년부터는 재정면에서 다소 나아질것 같아 한숨 놓인다고 밝힌다. 그래도 趙館長의 마음 한구석엔 그 아름답고, 소박하고, 애뜻한 우리네 분신인 民芸品을 우리손, 우리돈으로 버젓이 자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서려있다.

“芸術人村처럼 建築人의 마을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모여살았으면 해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건축물인 한옥으로 집을 짓고 모여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극히 소박하고 지극히 建築家의 인 늑으막의 소망을 담담히 말하는 建築家 趙子庸씨—

별부림없이 아래윗층에 벌여놓은 「우리의 조각」들을 쓰다듬으며 얘기하는 그 표정이 펍 밝다.